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추진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도입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 강화

지역단위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 추진되며,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간호사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5월 1일 관보에 고시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지속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 참여 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환자 및 병동 운영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공인력기준을 제시한다. 3차 상대가치 개편(입원료)과 연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우수 운영기관 성과보상 강화, 표준적인 서비스 제공방식 개발·보급 등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인 일원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 경영진 및 제공인력,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서비스 제공·이용 문화에 대한 안내·홍보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간호사 근무환경·처우개선 = 간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018년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처우개선 대책'을 계속 이행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필수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통해 야간전담간호사 등 간호사의 야간근무 보상을 강화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입

원실의 간호인력 배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하도록 종합계획에 명시했다. 지난 2018년 고시 개정을 통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일반병동 입원환자에 대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개선한 바 있다.

△지역단위 적정인력 배치 시범사업 = 배출된 신규간호사의 해당 지역 내 근무, 기존 근무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한 간호사 배치 쿼터(Quota) 설정 등 지역단위 적정인력 배치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의료취약지역, 군지역 등 대상지역 및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중환자 등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지역사회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한다.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해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퇴원 후에도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의뢰(회송), 방문진료, 지역사회 복지·돌봄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방문진료서비스 = 거동불편환자 등이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간호사, 의사, 약사, 영양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으로 구성된 '방문의료팀'을 통해 환자 상태에 적합한 방문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 진료·간호·복약지도·재활·영양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택의료팀 = 영유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의료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자 1세 미만 영유아 아동의 외래 분인부담을 절반 이하로 경감한다. 중증소아환자는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자안전 = 환자안전에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중환자실 격리료 등 감염관리 활동 비용 보상을 현실화한다. 결핵환자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적기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기준 및 평가항목 등을 개선한다.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동배 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노인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

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이 법 개정 추진한 결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상으로 하는 첫 중장기 계획이다. 매 5년마다 수립된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명시한 것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이뤄졌다.

당시 신경림 국회의원(현 대한간호협회장)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월 3일 공포된 후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 등 4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초고령사회 등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결합해 보다 안정적인 건강보장을 실현할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안정적인 이행 지원,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했다.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하고, 적정수가와 합리적 의료이용, 예방적 건강관리 등 제도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향성 아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권덕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협, 보수교육 강사교육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2019년 보수교육 강사교육을 KNA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국에서 간호사 보수교육을 담당할 강사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번 강사교육에서는 △근골격계 건강문제와 재활(2회) △노인환자의 응급간호(2회) △만성질환 관리 및 간호(3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근골격계 건강문제와 재활' 프로그램은 1차 4월 25~26일 실시됐으며, 2차는 5월 9~10일 열릴 예정이다.

'노인환자의 응급간호' 프로그램



랩은 1차 4월 9~10일, 2차 4월 16~17일 실시됐다.

'만성질환 관리 및 간호' 프로그램은 1차 4월 18~19일, 2차 4월 23~24일 실시됐으며, 3차는 5월 2~3일 열린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역사뿌리찾기]

'대한간호(속간1호)' 다시보기 ②

대한간호협회가 1953년 6월 26일 발간한 잡지 '대한간호(속간1호)'에 실린 글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원문(국·한문 혼용)을 서지학자가 한글화한 버전으로 게재하며, 간호사 명칭은 당시 불렀던 그대로 간호원으로 삼습니다. 아래의 글은 당시 대한간호협회 김은순 회장이 '속간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볼 때 간호사업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한간호'의 발간 시명은 첫째, 일반 간호원 자신의 수양을 증진시킬 것. 둘째, 간호사업과 일반사회와의 관련성을 밀접히 결합시킬 것. 셋째, 세계 국제간의 의료 및 간호 상식을 자양시키려는 목적에서 실행된 것임이다.

원래 우리 한국에 있어 간호사업의 창시는 미, 영,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한국에 기독교를 선교할 목적으로 부속사업 겸 의료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발족되어 왔지만 불행하게도 일제 식민정책 하에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압박과 부자유한 환경 속에서 눈물겨운 가슴 아픈 반세기의 역사를 가졌다. 그것은 누구나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한국의 자유와 독립의 염속한 사실에서 노예와 같이 취급하여 오던 일제 간호정책은 물러가고, 낙담한 우리들의 존재였지만 환화와 용기와 희망 속에서 우리들의 신념은 결국 1949년 5월 국제간호협회 가입을 실현함으로써 한국간호협회의 존재가 비로소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간호사업에 투신한 각자는 비참한 결실과 각오로서 일평생을 사회에 헌신할 것은 물론 평생사에도 명심할 것은, 우리 간호의 조상 '성 나이팅게일'의 심정과 모습을 머리 속에 항상 그리고 가슴에 식어 자기의 전 생애를 병마와 싸우는 불쌍한 환자의 생명을 구출하겠다는 오직 일평생의 박애심과 활동으로서 일관하는 숭고한 정신 밑에 뭉치고 합심하여 국기와 민족 앞에 이바지하여 보겠다는 결심과 정신밖에 다른 뜻이 없는 것입니다.

치열한 일선 전투에서 부상과 질병으로 쓰러지는 부상병은 누구의 손으로 구출하며, 후방에서 병마로 신음하는 동포는 누구의 간호로서 회생할 것인가?

자유우방 19개국 간호원들은 숭선 지망하여 이 나라의 간호사업을 도우며 방앗없이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간호교육을 받은 자격 간호원의 수가 부족하고 모든 자료와 기술면에 있어 빈약한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1,000만 여성은 갈 길이 어디이며 할 일이 무엇인가? 숙고하고 분발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회봉사에 있어 간호사업 이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잡지의 시명은 간호원의 질적 향상에 노력할 것과 간호봉사의 이해가 사회에 널리 알려질 것과 잡지를 통하여 더 많은 여성의 각성과 체현이 있기를 기원하여 마지않으며 사회지도자 제와의 부단한 선도와 협조 없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2019 연세대학교 의료원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 신규간호사 채용

도전과 도약

"135년 역사의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할
능력 있는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 : 2019. 4. 30.(화)부터 5. 20.(월) 24시까지



- 응시자격**
- 간호학과 기술업자(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영어(제2외국어 포함)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 * 취업보호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등)는 관련법에 따라 우대
 - * 간호사 면허증은 자격사항에 필히 기재
 - * 남자 지원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군면제자

채용인원 | 000명

- 접수방법**
- 1) 연세의료원 홈페이지 (<http://www.yuhs.or.kr>) 접속
 - 2) 채용정보 게시판 내 「2019년도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 신규 간호사 채용 모집」 선택
 - 3) 입사지원서 작성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1차면접 → 2차면접 → 신체검사

서류전형 합격발표 | 2019년 5월 넷째주 예정

주소 및 문의 |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료원 종합관 5층 인사팀
전화 : 02-2228-1286

- 구비서류(면접시 제출)**
- 1)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학칙/석차(누적 평균) 입력 필수)
 - 2)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함. 군 경력사항 기재 필수)
 - 6) 기타 관련 자격증, 어학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 타**
- 1) 합격자 발표 및 각 전형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yuhs.or.kr>)에 게시됩니다.
 - 2) 전형방법 및 일정은 의료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 전까지 세브란스병원(신촌)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신축)용인세브란스 개원에 맞춰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 4) (신축)용인세브란스병원 인사·급여체계 적용 예정입니다.